

연예종합

세상에!...엄마뻘 여인과 사랑?

안방극장 '파격' 연상연하 커플 붐
띠동갑은 기본에 스무살 차이까지

“열두 살 띠동갑이랑 말이 통해요?”

MBC 월화드라마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이하 ‘아결여’)의 주인공 박진희의 대사다. 하지만 그녀는 드라마에서 ‘절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던’ 10살 연하의 김범과 사랑에 빠진다.

안방극장에 연상연하 커플이 등장한 것은 꽤 오래 전이다. 전과 차이가 있다면 이제 2살, 4살 차이의 연상연하는 드라마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가 됐다는 사실이다.

‘아결여’에서 24세의 대학생 김범은 34세인

방송기자 박진희와 감정의 밀고 당기기를 이어 가며 누나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한다. 박진희 보다 연하남 김범의 적극적인 행동이 두 사람의 사랑을 잇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MBC 월화드라마 ‘파스타’에서는 띠동갑인 누나가 훨씬 적극적이다. 극 중 김산(알렉스)의 누나 김강으로 등장하는 변정수는 주방의 꽃미남 요리사 필립역의 노민우에게 애정 공세를 펼치고 있다.

베테랑 여배우 김미숙과 신인 연기자 이현진의 사랑은 파격적이기까지 하다. KBS 1TV ‘바람불어 좋은 날’에서 이현진은 20살 연상의 고등학교 스승인 김미숙과 사랑에 빠지며 힘들고 가슴 아픈 사랑 연기를 펼친다. 두 사람은 실제 25

살 차이로 이현진의 어머니와 김미숙이 동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한 드라마 작가는 “30~40대 여성들이 드라마의 주요 시청자층이 되면서 그들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줄만한 소재를 찾다보니 연상연하가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과감해지는 커플의 상황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연상연하라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너무 흔한 설정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나이 차이도 많아지고 설정도 더 대담해져 시청자들을 공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 안방극장에서 열 살 이상 나이차를 극복하고 사랑을 키우고 있는 연상연하 커플, 사진 맨위부터 MBC 드라마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김범과 박진희, KBS 1TV ‘바람불어 좋은 날’의 이현진과 김미숙, 사진제공 | MBC·KBS

‘개콘’ 새별 오나미
“내 우상은 영웅재중”같은 학원 다니던 고향 친구
가수됐단 소식에 나도 용기

‘개그콘서트’의 신예 스타 오나미(사진)가 그룹 동방신기의 영웅재중과 얽힌 이색적인 인연을 공개했다.

오나미는 최근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고향이 충청남도 공주라고 밝히며 ‘고향 친구’라고 영웅재중을 소개했다.

“공주가 워낙 작은 곳이기 때문에 끼가 있는 친구들은 금방 유명해졌다. 영웅재중은 저보다 나이는 여러지만 같은 보습학원에 다니며 알고 지냈다.” 고등학생 때까지 육상선수로 활동했던 오나미가 개그우먼이란 꿈을 실현할 수 있던 데는 영웅재중의 역할이 컸다.

“지방 도시에 살며 연예인이 되는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영웅재중이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다”는 오나미는 “계속 도전해 결국 가수의 꿈을 이룬 영웅재중을 옆에서 보며 무조건 부딪혀 보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오나미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웅재중이 처음 신문에 실렸던 기사의 제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그에 대한 추억이 남다르다.

대학 졸업 후 서울 대학로로 진출한 오나미는 2008년 KBS 공채개그맨 23기로 데뷔해 현재 KBS 2TV ‘개그콘서트’의 코너 ‘솔로천국 커플 지옥’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지난 해에는 KBS 방송연예대상 신인상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 잇 북

●판타스틱(시공사 펴냄/8500원)

2007년 5월 SF, 판타지, 미스터리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는 전문잡지로 발간했던 월간 ‘판타스틱’이 1월 재발간됐다. 매달 화제의 중심이 있는 인기 작가의 작품과 고전, 신인작가의 참신한 작품까지 새롭게 읽을 수 있다. 소설뿐만 아니라 매달 흥미로운 기획 기사와 인터뷰, 칼럼, 좌담, 작가문답들도 함께 실린다. 이번 호에는 SF의 상상력을 기술이 따라갈 수 있는지를 짚어보는 특집 기사를 담았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주디 바레트 글/론 바레트 그림/토도북/8500원)

동명의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된 책이다. 개봉 당시 전미 박스오피스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2월11일 개봉한다. 누구나 한번쯤 해 보았을 하늘에서 먹을 것들이 내린다는 상상이 출발한 그림책이다. 기발한 상상력의 세계는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아내인 주디 바레트가 글을 쓰고 남편인 론 바레트가 그림을 그린 부부작품이다.

편집 | 양혜진 기자 yhj@donga.com

“송승헌 보자”
달리고 달리고~태국, 스케줄 동행 사생팬 등장
50여명은 스쿠터 타고 미행도

톱스타 송승헌(사진)

이 태국에서 ‘사생팬’을 몰고 다니는 진풍경을 연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생팬이란 ‘사생활을 포기한 팬’의 줄임말로,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스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쫓는데 온 하루를 보내는 팬들을 이른다.

송승헌 측 관계자에 따르면 송승헌이 흥행영화 ‘영웅본색’의 한국판 리메이크작 ‘무적자’(감독 송해성·제작 핑크프린트) 촬영을 위해 태국 방콕에 도착한 20일부터 팬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해 현재는 약 100명 가까운 구름팬이 촬영장과 숙소에 집을 치고 있다.

이들 중 50명 가량은 태국 입국부터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송승헌의 동선을 그대로 쫓고 있다. 이로 인해 송승헌이 이동할 때마다 그의 차 뒤로 스쿠터 수십 대가 뒤따르는 진풍경이 펼쳐져 현지에서도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전언이다.

송승헌과 함께 태국에 머물고 있는 관계자는 “송승헌의 스케줄에 맞춰 따라다니는 팬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생팬들을 보는 듯하다”면서 “일부 팬들은 과일이나 꽃 등으로 선물공세를 펼치기도 한다”고 밝혔다.

‘가을동화’로 한류스타로 떠오른 송승헌은 군 제대 후 출연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으로 일본을 비롯한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큰 주목을 받았다. ‘한류 4대천왕’으로 꼽히는 송승헌은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연예 뉴스 스테이션

●유지태-김효진 커플 아이티 2천만원 기부
연인 사이인 유지태와 김효진이 아이티에 2000만원을 기부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은 28일 “유지태와 김효진이 아이티의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 각각 10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밝혔다.●‘찬란한 유산’ 81개국 무상 방영
한효주, 이승기 주연의 드라마 ‘찬란한 유산’이 세계 81개국에서 전파를 탄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SBS 인터넷서널과 ‘찬란한 유산’의 판권 계약에 따라 유럽,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지의 81개국에 무상 방영을 지원한다고 28일 말했다.●‘비·JYP 미국공연 무산 책임없다’
가수 비의 미국 공연 무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배광국 부장판사)는 28일 공연기획사인 ㈜엘메이스트라 엔이 가수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5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석같은 배우’ 이병헌(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7일 일본 도쿄 빅사이트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일본 보석 베스트 드레서상 시상식에서 남성부문 특별상을 받고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의 부인인 미유키 여사. 도쿄 | 연합뉴스

소녀시대 vs 2AM ‘음반대결’

‘오!’ 15만장 - ‘죽어도 못 보내’ 5만장
선주문량 자체 최고…최종판매량 관심

허민정 기자 justin@donga.com

‘소녀시대와 2AM의 빅뱅!’

가요계가 설 연휴를 앞두고 소녀시대와 2AM이란 아이돌 그룹의 ‘성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두 그룹의 양반 구도는 음반 판매량이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28일 나란히 새 음반을 내놓은 가운데, 두 그룹 모두 데뷔 이후 ‘최고 선주문량’이란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 그 예다.

먼저 소녀시대. 이들은 지난해 ‘지’(Gee) 신드롬을 재현하겠다는 의지인 듯 외자 제목인 새 음반 ‘오!’(Oh!)를 내놓으며 무려 15만 장에 육박하는 선주문 기록을 올렸다. 이는 오프라인 음반계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서태지를 크게 위협하는 수치. 지난해 서태지는 ‘아트모스’(Atmos)란 새 음반을 선보이며 10만장을 훌쩍 넘는 선주문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아이돌 그룹 2AM(사진)과 소녀시대가 28일 동시에 새 앨범을 발표했다. 임진현 기자 photolim@donga.com

소녀시대가 이번에 거둔 대기록은 정규 1집 ‘소녀시대’부터 전작인 ‘소원을 말해봐’까지 4회 연속 10만장 돌파란 대박 행진을 이어가게 했다. 소녀시대 측은 타이틀곡 ‘오!’ 외에 11곡이 더 실린 정규 앨범의 특성상 “미니 앨범과 달리 판매 추이가 꾸준할 것”을 예상하며 25만장 돌파도 조심스레 기대했다.

소녀시대만큼이나 2AM을 향한 반응도 뜨겁다. 2AM은 특히 지난해 예능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멤버 조권과 임술을 비롯해 이창민 등

으로 인지도를 물론이고, 팬층 역시 눈에 띄게 두터워진 상황.

이를 입증하듯 2AM은 새 음반 ‘죽어도 못 보내’의 예약 주문을 5만장이나 이끌어냈다. 2AM 자체 최고 기록이기도 한 이 수치는 데뷔 이후 첫 10만장 돌파도 넘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기도 했다.

2AM은 22일 KBS 2TV ‘뮤직뱅크’를 통해 TV 무대에 복귀했으며, 소녀시대는 30일 MBC ‘쇼! 음악중심’으로 팬들 곁에 돌아온다.

“브란젤리나 결별은 완전한 오보”

로스 앤젤레스서 오붓하게 식사
피플紙 “여섯 아이들과 잘 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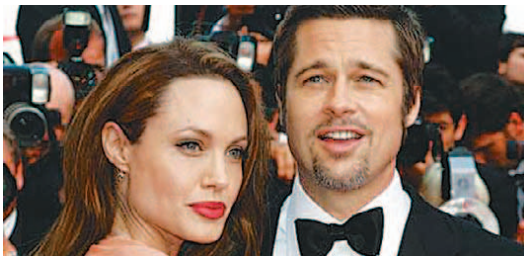
할리우드의 톱스타 커플 ‘브란젤리나’ 브래드 피트(47)와 안젤리나 졸리(35)의 결별설에 대한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지 피플이 결별설을 일축하고 나섰다.

피플은 27일(현지시간)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영국 타블로이드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루머는 ‘완전한 오보’이며, 두 사람은 루머가 퍼졌을 당시 로스 앤젤레스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피플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는 현재 로스 앤젤레스에서 6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영국의 주간 타블로이드 신문 ‘뉴스 오브 더 월드’는 24일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다고 보도했고, 잇따라 영미 언론들도 이 보도를 인용해 결별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할리우드 스타 소식에 정통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인기 연예 사이트 페레즈윌턴닷컴은 “루머를 믿지 말라”는 제목으로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결별했다는 보도가



안젤리나 졸리(왼쪽)와 브래드 피트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다. 두 사람의 대변인은 이러한 보도가 루머이며, 두 사람은 헤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뉴스 오브 더 월드’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피플은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는 각자 영화 촬영 스케줄로 인해 3월에 개최되는 아카데미 어워드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